

남쪽 기억



강남동

강남동. 남쪽기억

발행일. 2020 09

발행처.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김남옥

제작기획. 스콘

출판편집. 참깨

표지사진 심규동





강남동

개요

개설 시기/일시	1998년 10월 1일
성격	행정동
면적	16.09km ²
인구	18,268명 (2020년 8월 기준) 남자 9,126명 / 여자 9,142명
가구 수	8,300가구(2020년 8월 기준)

정의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행정동

개설

강릉시를 구성하고 있는 21개 행정동·읍 중의 하나로 남대천 남쪽에 있다. 전체 105개의 법정리·동 중 8개의 법정동 (노암동, 유산동, 장현동, 담산동, 박월동, 신석동, 운산동, 월호평동)이 이에 속한다. 46개의 통과 233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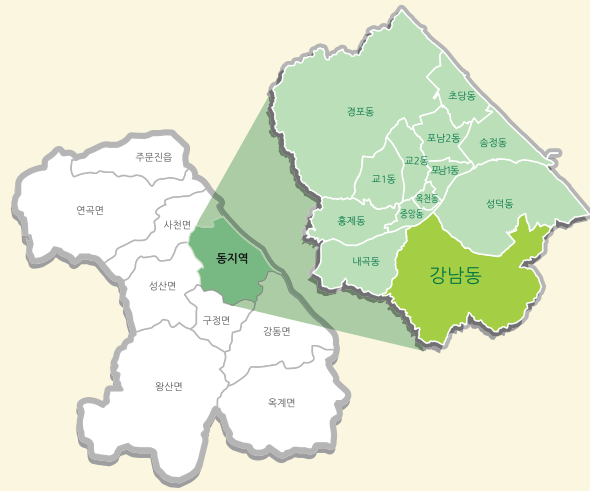
그중에서도 노암동은 강릉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남대천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으로 동쪽으로 입암동·청량동·신석동, 서쪽으로 내곡동, 남쪽으로 장현동과 박월동, 북쪽으로 명주동과 접해 있다. 강릉시의 중심부와 접해 있어 강릉 시내로 접근하기 편리하다.

명칭유래

노암동이라는 이름을 생기게 한 노가니골은 남대천 잠수와 남쪽에 있는 넓은 골이다. 대관령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모든 물줄기는 동쪽과 남쪽, 북쪽으로 흐르는 데 비하여 이 노가니골 안쪽의 독갑재에서 흘러나온 물은 유독 동쪽으로 흐른다. 중국 노나라 곡부에 있는 사수수(四洙水)도 동쪽에서 나와 서쪽으로 흐르는 데, 이 노가니골의 물이 마치 공자가 살던 노나라 곡부의 시냇물과 같다고 하여 '노간리(魯間里)' 또는 '노가니'라고 불렀다.

또는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 임금이 서쪽(서울)에서 동쪽(영월)으로 귀양을 갔는데, 그 이름을 딴 것으로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노' 자가 들어간 이름은 대개 쫓겨난 조선 임금 단종을 추모하여 붙였거나,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너레바위 [너레바우]가 있어서 너레바웃골 이라고도 하였으며 노간리와 너레바웃골을 합하여 노암동이 되었다.



이외에도 함중 어씨 두 형제가 서로 노비 월이를 부르는 들이란 뜻에서 유래한 월호평동, 마을에 운수수조형(雲水垂釣形) 또는 운중선좌형(雲中仙座形) 명당자리가 있어서 생긴 운산동, 이곳에서 흐르는 물이 맑다고 해서 생긴 담산동 등 각 법정동의 명칭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형성 및 변천

남동은 남대천 남쪽에 있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는 노암동·장현동·월호평동을 통합하여 형성되었는데, 현재 노암동, 유산동, 장현동, 담산동, 박월동, 신석동, 운산동, 월호평동을 관할하고 있다.

노암동은 본래 강릉군 남이리면에 딸린 지역으로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 때 아죽리를 병합하여 노암리라 하여 성남면에 편입되었다. 1920년에는 성덕면에 편입되고 1955년 9월에 강릉시에 편입되어 리(里)를 동(洞)으로 고쳤다. 1955년 9월 1일 성덕면에서 강릉시로 승격되면서 행정동이 노암동으로 되었고, 법정동으로는 노암동과 유산동으로 구분하여 관리되다가 1998년 10월 1일 과소 행정동 통폐합 정책¹⁾에 따라 기존의 장현동, 월호평동과 함께 강남동으로 되었다.

자연환경

노암동은 북쪽으로는 남대천이 지나고 있으며, 시내 중심부와 가까운 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의 복합 지역을 이루고 있으나 점차 도시화하고 있다.

1) 교통·통신의 발달과 전산화로 인한 동 행정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인구 5,000명 미만의 행정동을 통합하였다. 동을 통합하는 데는 지역의 역사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했다.

현황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복합형 행정동으로서 면적이 16.09km²이며, 2020년 8월 기준 46개 통, 233개 반에 공무원은 22명, 8,300세대에 18,268명(남자 9,126명, 여자 9,142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주요 기관으로는 강원도 강릉 교육지원청, 강원 영동 병무지청, 노암초등학교, 경포중학교, 한국폴리텍Ⅲ대학 강릉 캠퍼스 등과 기타시설인 강남 아동센터, 강릉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주요 문화재로는 노암동에 있는 오성정(강원도 유형 문화재 제47호), 강릉 회계 고택(강릉 김윤기 가옥,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58호), 강릉 동은 고택(강릉 최근배 가옥,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55호)과 향나무(강릉시 보호수 634) 외에도 조수환 가옥(강원도 유형 문화재 제96호), 강릉 추산 고택(강릉 최대석 가옥, 강원도 유형 문화재 제81호), 운산동 은행나무(강원도 기념물 제29호), 강릉 모학당 고택(강릉 남진용 가옥,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60호) 등이 있다.

노암동 지역은 강릉시 중심부의 남대천 변에 있어서 매년 강릉 단오제가 개최되는 시기에 가장 붐빈다. 2004년 단오문화관이 개관되어 노암동은 단오제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단오문화관에는 상설전시장이 있고, 전통문화교실과 전통 민속 정기공연이 개최된다. 단오 개최 시 단오문화관을 중심으로 한 남대천 주변에서 다양한 전통 공원과 체험이벤트가 개최되고, 난장들이 운영된다.

출처: 디지털강릉문화대전(<http://gangneung.grandculture.net>)

남대천 월화정 설화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 가 옛 연화봉의 반석 위에 있는 월화정의 김무월랑과 연화부인에 관련된 설화이다.

월화정은 신라 명주군왕의 부모인 김무월랑(金無月朗)의 '월(月)'자와 박연화부인(朴蓮花夫人)의 '화(花)'자를 따서 명명한 정자이다. 1930년 강릉김씨 종인들이 무월랑과 연화부인의 설화가 깃들여 있는 곳을 기념하기 위해 정자를 신축하였는데, 영동선 철도 부설로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명주성 내로 옮겨 세웠다가 1961년에 철거되었다. 2004년 옛터 인근에 관리사 1동과 함께 월화정을 복원하였다.

이 정자에 전해지는 「남대천 월화정 설화」는 「양어지 설화」 또는 「명주가 배경 설화」 등으로도 불리는데, 신라 때 인물로 강릉 김씨 시조가 된 명주군왕 김주원의 부모와 관련된 이야기로 허균(許筠)의 「별연사고적기(鰲淵寺古迹記)」에 가장 자세하게 실려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강릉부의 남쪽에 큰 냇가 있고 그 냇가의 남쪽에 별연사가 있으며, 그 절 뒤쪽 언덕은 연화봉(蓮花峰)이다. 노인들이 전하기를 주원공(周元公) 김주원의 어머니 연화부인이 여기에 살았으므로 이것을 따서 봉우리 이름으로 삼았고, 절은 곧 그 옛집이라 한다. 절 앞에는 석지(石池)가 있는데 이름을 양어지(養魚池)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김무월랑의 이름은 김유정(金惟靖)으로 강릉에 와 있는 동안 연화부인과 알게 되었으나 다시 경주로 돌아가서 연락이 없자, 연화부인이 잉어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하게 함으로써 두 사람이 다

시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두 사람이 잉어의 배에서 나온 편지를 보고 다시 만나게 된 일에 대해 『고려사(高麗史)』 「명주가 배경 설화」에서는 “정성에 감동되어 이루어진 일이지 사람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천정배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양어지와 서출지는 메워져 시영 주택이, 연화봉에는 한일 아파트가 들어섰다.

출처: 디지털강릉문화대전(<http://gangneung.grandculture.net>)

노암터널

2014년 4월 강릉-원주고속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가 결정되면서 기존 영동선이 지나가던 노암터널은 페터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노암 터널을 포함한 2.6km의 지상부 유희부지는 월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노암터널은 이와 동시에 6.25 전쟁 당시에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반공 인사 100여 명이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비참하게 집단 학살당한 안타까운 역사를 지닌 현장이기도 하다. 강릉시에 침입한 북한군은 이 지역 반공 인사들을 가두고 위협과 모진 고문으로 동조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강릉시민의 거센 반발과 반공청년들이 조직한 유격 활동이 격렬해지자 북한군은 100여 명의 반공 인사들을 이곳 터널에 몰아넣고 집중사격으로 학살을 하였다. 수복 후 가족이나 친지의 시신을 찾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았지만,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처참한 시신만 가득히 쌓여 있었다 한다.

노암동 집은 알록달록

글 송성진



오래된 마을에는 나름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
보라색, 오렌지색, 파스텔톤의 초록색 집들이 독특한
색감을 뽐내고 있는 듯한 동네. “저 집들의 색은 왜?”
라는 호기심에 답을 찾으며 노암동을 거닐어본다.

노암동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지금의 마을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무월랑과 연화낭자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남아 있는 서출지가 매워져
시영주택이 들어서고, 새마을운동의 산물인
재건마을이 생겨나고, 강릉고등학교가 이전해왔다.

당시의 강릉고등학교는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소위 말하는 명문고등학교였다. 이렇다 보니
속초, 동해, 삼척은 물론이고 태백, 정선, 평창에서까지
주변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멀리 유학길에 올랐다.
종종 가족이 같이 이사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학생들만이 하숙 형태로 거주했다.

익숙하지 않은 동네 골목골목에 놓인 하숙집을 찾는
일은 어려웠다.
집을 찾는 이들에게 집주인은 “동네 자전거거포에서



골목을 들어서면 파란 대문집이에요”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곤 하였는데 비슷한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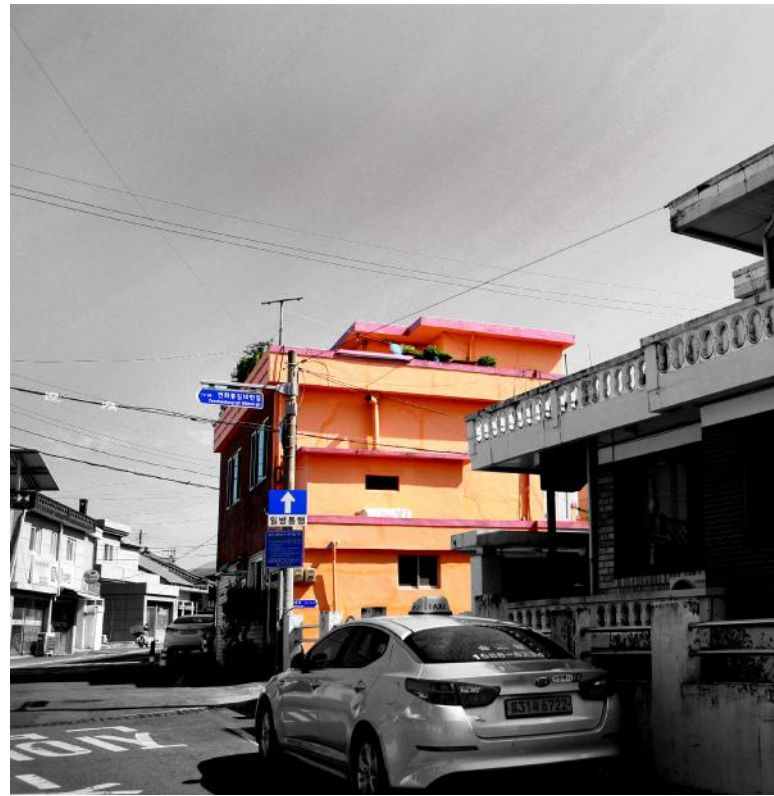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집 전체의 도색을 남들과 다르게 하는 방법이었다. “골목에 들어서면 보이는 보라색 집으로 오시면 돼요.” 또는 “오렌지색 집 옆집 녹색 대문집이에요”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치 동네 이정표 역할을 위하여 몇몇 집이 독특한 색을 칠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암동에 오래 사셨다는 심운자 할머니(80) 말에 의하면 몇 집이 빨간색, 파란색이 아닌 색으로 도색을 하면 그 골목은 그 집을 기점으로 길을 가르쳐주었다고 한다. 하숙생이 집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이점에 다른 동네와 다르게 색을 칠한 집들이 많았고 이후에도 습관처럼 특별한 색을 골라 도색을 했다고 한다.

동네가 비슷해져 가는 것, 한 집이 페인트를 칠하고 나면 남은 페인트를 얻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에 비슷한 색감의 집이 생기기 마련이다. 동네 공동체의 유대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노암동에 유대감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 동네 설명을 위해 이웃집을 자주 거론하는 말에 연결이 생긴다. 동네에 위치한 오래된 고택 김윤기 가옥의 주인이 기부한 골목 주차장이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쓰이는 장면도 발견한다.

노암동만의 방식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색감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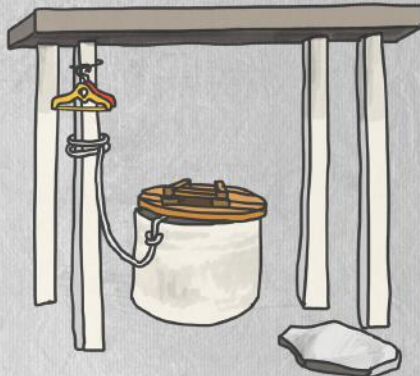


이번정류장은 부흥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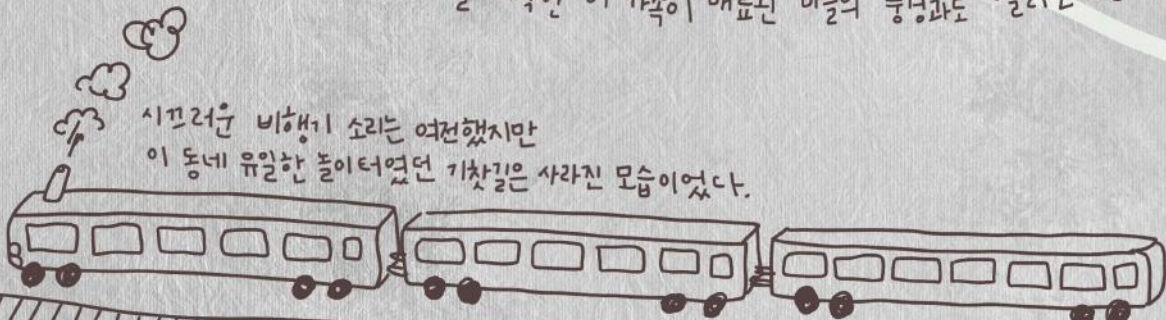
This stop is Buheung Village

글·그림 서지원

부흥마을에는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다.
 옛날이야기 속에서나 등장할 것같은 아우라를 가진 이곳에서
 아직 빨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동네 할머니께 들었다.
 내 기억 속에도 이 곳은 동네 할머니들이 빨래감을
 가지고 삼삼오오 모여 방망이질을 하던 모습이 기억된다.
 어렸을 때는 저 우물 안이 궁금해도 झा아서 들여다 볼 수
 없었는데 하여튼 꽤나 양동이 한 가득 물을 길러 보았다.



군인의 정년퇴직이 만 45세 였다면 시절 할아버지께서 퇴직연금을 절반정도 당겨받아 이 집으로 이사왔다고 한다.
 부친에서의 셋방살이를 끝내고 아들 셋과 살아갈 할아버지, 할머니의 첫 집이었다. 이전 그리운 나의 할머니댁.
 현재의 모습은 나의 기억과 다르게 어두워진 기분이 들었다. 물이 흐르는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돌담에 생긴 이끼는 여전했고,
 계단을 올라야 겨우 집의 마당을 훑쳐볼 수 있던 높은 담 위는 또 다른 골판으로 지붕까지 덮인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강릉에서의 타지살이를 시작한 이 가족이 매료된 마을의 풍경과도 달라진 모습이었을 것 같다.



시끄러운 비행기 소리는 여전했지만
 이 동네 유일한 놀이터였던 기차길은 사라진 모습이였다.



마을의 시작점 부흥마을 버스정류장, 눈이 내리던 겨울의 어느 날
어린이집 하원버스가 눈이 쌓인 언덕을 내려가지 못하고 이곳에 멈춰섰다.
곧 이어 한 아이가 차에서 내려고 뚝뚝 얼어붙은 길을 조심조심 걸기 시작했다.



아이는 답답했는지 넘어질까 무서웠는지 매고있던 책가방을 풀어 썰매를 타고
언덕을 내려갔다. 씩씩한 이 아이는 약 20년 후 동네를 찾았다.



마치 대형마트의 주차장처럼

이 마을은 출입구가 정해져 있었다. 내려가는 언덕과 올라가는 언덕
또 언덕을 내려가면 마주하는 좁은 골목길에 아버지의 집이자 나의
할머니댁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시 언덕을 내려오면 기차길이 있었다.



언덕에 슈퍼하나, 아래에 슈퍼들
할머니 심부름을 하러 나는 언덕 아래에 있는 부흥슈퍼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하면 '지원이 뭐줄까?' 그런 곳이었다.

'달걀 두 개주세요!' 한 개 200원하는 달걀 두 개와 100원짜리
편지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언덕 길은 신이나 넘어서기 좋은 곳이었다.

그리고
달걀과 편지
다들 다 먹어
버렸고 언덕이
바뀌었다



우리집 연대기

글 느루봄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2XX번길 X-1'

여기 집 한 채가 있다. 내 삶의 끝에는 항상 우리 집이 있었으니 우리 집의 연대기는 곧 나의 연대기라고 해도 다름이 없다. 자! 그럼 우리 집의 시작을, 나의 시작을 살펴보자.

슬레이트 지붕에 우리 집과 셋방, 창고, 마당 구석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까지 뭐 하나 신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낡은 집에 두 살짜리 아기였던 내가 이사를 왔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집은 큰아버지가 동해에서 강릉으로 유학 나오실 때 할머니께서 장만하신 나름 우리 집안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집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집에서 신접살림을 차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고 다시 분가하게 되면서 이 집으로 오게 되었을 땐 이미 이 집이 지어진 지 한참이 지난 뒤였다.

우리 집을 가장 먼저 떠올릴 때마다 나는 콘크리트 특유의 차갑고 축축한 벽과 바닥이 선명하다. 조명도 변변치 않아 낮에도 어두컴컴하니 창으로 노오란 햇살만이 비치는 내 방을 나는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햇살에 노르스름하게 익어 꼭 노란 벽지로 도배한 듯한 방은 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때마다 책장이며 장난감 배치가 바뀌어 있어서 하원 길을 늘 설레게 했다. 지금 와 생각해 보면 하나뿐인 딸에게 뭐든 좋은 것을 해주고픈 엄마의 마음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걸지도 모르겠다. 내가 밤마다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걸 극도로 무서워한 것만 빼고 이 집에 대해 좋은 기억만 가질 수 있었던 80%는 엄마 덕이라는 걸 이미 훌쩍 커버린 지금에 서야 깨닫는다. 엄마 사랑해!

그렇다면 나머지 20%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내 유년 시절의 가장 든든했던 지원군들을 소개하려 한다. 나는 종종 셋방에 놀러 가곤 했는데 그곳엔 맘씨 좋은 성원이 오빠와 아주머니가 계셨다. 네다섯 살 꼬마인 내가 셋방 문을 열면 앞은뱅이책상에서 아주머니의 감시하에 학습지를 풀던 성원이 오빠가 반색하며 나를 반기고 아주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성원이 오빠를 더 공부시키는 걸 포기하고 항상 나와 놀아주었다.

우다다다다!



오늘도 바쁘다 바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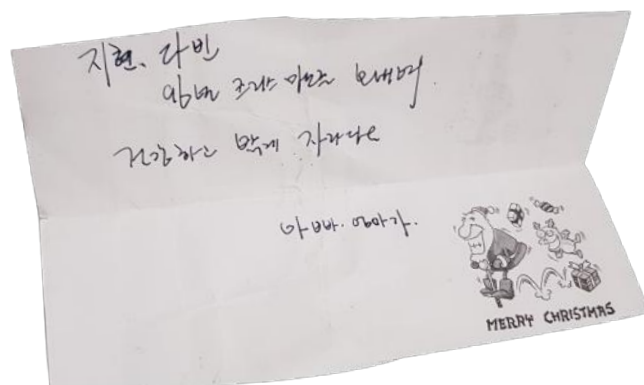
당시 초등학교생이었던 오빠가 학교에 간 사이에도 내가 엄마에게 어렵게 구한 한약을 안 마신다고 혼쭐이 날 때마다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 박하사탕으로 나를 달래주던 아줌마, 어린 내게 몰래 자물쇠가 잠긴 창고를 실핀으로 여는 최초의 일탈(?)을 알려준 성원이 오빠까지 두 사람은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나와 우리 가족을 살뜰히 챙겨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한편 나는 지금과는 정반대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할 정도로 공사다망한(?) 뽀뽀 마른 꼬마였다. 유치원에 다녀온 뒤 내 방에서 놀다 보면 성원이 오빠를 비롯해 앞집 동생, 동네 친구, 언니들이 대문 밖에서부터 나를 불렀기 때문이다. 어찌했든 이들과 동네 골목 곳곳을 접수한 뒤에는 아지트였던 뒷산을 넘어 기찻길 건너 놀이터까지 영역을 확장해 놀다가 위험하게 기찻길을 막 건너다닌다고 엄마에게 빗자루로 혼쭐이 나기 일쑤였다. 그럴 때도 셋방으로 도망가면 성원이 아주머니가 간식으로 달래주곤 하셨던 게 떠오른다. 나는 이 집 구성원들의 비호 아래 밝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이 집에도 암적인 구석이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집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었다. 낮에는 그나마 다닐 만했는데 밤이면 엄마가 간혹 혼자 화장실에 가라고 채근할 때마다 눈만 번쩍이는 검은 고양이나 정체 모를 습격(?)에 항상 벌벌 떨었다. 오죽하면 잠시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을 때 내가 손님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했던 곳이 집 안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었을까. 그 당시 나는 모든 사람이 집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당당히 그럴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움은 오로지 부모님의 몫이었다.

낡은 집에 학을 떼던 엄마의 강력한 주장으로 잠시 옆 동네 새 임대 아파트에서 3년간 살던 중 태풍 루사로 옛집이 천장까지 잠긴 뒤로 그 집 자리에 새집을 지어 돌아왔을 땐 이미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생이었다. 되돌아온 집에서는 더는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 집안 여건은 전보다 더 좋아졌지만, 그들이 떠난 뒤로 나는 학교와 집만을 오가는 완벽한 집순이가 되었다. ▲





일러스트 김나훔

최초의 비밀을 들킨 그 어느 날이었다.

글 김지현 (강남동 주민 참여 작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잊을만하면 꼭 한 번씩 꾸는 꿈이 하나 있다. 꿈에서 아직도 어린 나는 옛날 시영 떡방앗간 옆집이었던 우리집을 나선다.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뭔가 대단한 걸 찾기 위해 옛 자력수 운수탕을 지나 영창 슈퍼 쪽으로 가면 동네 언니 오빠 친구들과 아지트 삼아서 모이던 너레바위가 나온다. 그 곳에서도 한참을 더 걸어가면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출입문처럼 끝없이 넓고 긴 문제의 기찻길이 나온다. 그 너머에는 미로 같은 골목과 조금은 허름한 콘크리트 집으로 이뤄진 마을이 있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나는 어릴 적 텔레비전에서 보던 천사소녀 네티처럼 남의 집 담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도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해 끝없이 헤맨다. 그러다가 무서운 강아지와 인상이 험악한 할아버지에게 몰래 지나가는 걸 들키는 순간! 놀란 마음으로 꿈에서 깨는데 얼마나 허탈한지. 꿈에서 기찻길까지 나오는 장소는 실제로도 내가 살던 옛 노암동의 모습이다. 하지만 꿈과 달리 기찻길 건너편에는 나의 달콤한 첫 비밀 장소가 있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긴 곳, 아마 호호백발 할머니가 되어서도 손주뻘 아이들에게 수없이 되뇌 것만 같은 선명한 것, 그래서 잊을만 하면 꼭 한 번씩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곳에 처음 가게 해준 이는 우리집 셋방에 살던 성원이 오빠였던 걸로 기억한다. 오빠는 나를 무척이나 귀여워해서 곧잘 나와 함께 놀아주곤 했는데 오빠는 내게 고드름 따먹는 법, 실핀으로 자물쇠 따는 법 등 그 당시로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놀





이의 대가였다. 그런 오빠가 “쉴, 여기로 가는 건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야 해!”라는 말을 남기고 데려간 곳은 생전 보지 못한 정말 큰 기찻길이었다. 이곳만 넘어가면 정말 좋은 곳이 있다는 말에 살짝 겁을 먹고서도 오빠 손을 꼭 붙잡고 기찻길을 건너가기 시작했다. 오빠도 그때 고작 초등학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였지만 그보다 한참 어린 나를 데려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혹시나 기차가 올까 봐 주변을 연신 살폈다. 어린이 둘의 종종걸음으로 꽤나 걸려 기찻길을 건너간 곳은 낯선 아파트 단지, 지금 양우아파트가 있던 노암1주공 놀이터였다.

매일 너레바위에서 바위를 타거나 탐험을 하며 놀던 게 다였던 내게 나타난 내 인생을 망치려 온 나의 구원자 같은 곳! 알록달록 무지갯빛 색으로 칠해진 높은 미끄럼틀, 시소, 그네까지! (아직도 나는 그네에 사족을 못 쓴다) 역시 오빠를 따라오길 잘했다는 마음과 이에 따른 엄청난 존경심까지 기찻길에 대한 나의 두려움은 이미 저만치 날아간 뒤였다, 다음날에도 그다음 날에도 놀이터에 가는 날이 이어졌다. 하지만 놀이터에 대한 내 열정은 식지를 앓았고 먼저 지쳐버린 성원이 오빠가 놀이터 가기를 거절한 날, 나는 기어코 혼자서 기찻길을 건너 놀이터로 갔다. 미끄럼틀 한번, 그네 한번, 혼자서 시소도 억지로 발을 몇 번 뛰고 나니 혼자 노는 건 생각보다 아주 재미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길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혼자 깊은 생각에 빠졌다. ‘혼자 노는 건 재미없지만 분명히 오빠는 나만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하지만 성원이 오빠가 모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일련의 사고 과정으로 그다음 날 너레바위에서 놀던 내 친구 몇몇을 이끌고 놀이터에 갔다. 처음에는 기찻길이 무서워 겁 내던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놀고 난 뒤로 나와 같이 이곳에 폭 빠져버렸고 그들이 보내는 우려름에 취해 의기양양해진 나는 며칠 뒤 앞집 동생을 놀이터에 데려갔다. 성원이 오빠가 내게 해준 당부도 잊지 않고 똑같이 하고선 말이다. 앞집 동생도 내가 처음 놀이터에 갔을 때처럼 이곳에 폭 빠진 모양새였다. 스스로 좋은 언니라는 자부심이 샘솟았다.

문제는 그러고 며칠이 지난 날에 터졌다. 그동안 한창 놀이터에 재미를 붙인 동생과 달리 나는 슬슬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너레바위에서 내가 데려갔던 놀이터 친구들도 나와 같이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못 보던 이들이 놀이터에 자주 나타나 예전만큼 실컷 놀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미 비밀이 내 손에서 저만치 떠났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했다. 나는 서서히 놀이터에 발을 끊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던 걸까. 유치원에 다녀와 집에서 놀고 있을 때였다. 앞집 아주머니가 우리집에 들러 자기 애가 여기 오지 않았는지 엄마에게 물으러 왔다. 엄마는 우리 집에는 안 왔으니 다른 집에 한번 가보라고 아주머니를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몇 시간쯤 지

났을까, 동네가 발각 뒤집혔다. 앞집 동생이 없어졌다는 거였다. 그때서야 나는 아차 싶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비밀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떼굴떼굴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결국 아주머니가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어린 마음에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사실을 말했다. 전에 내가 기차길 건너 놀이터에 데려갔노라고, 아마 거기 있을 것 같다고. 옆집 동생은 역시나 그 놀이터에서 해맑게 놀고 있다 쫓아간 어른들에게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그날 겁대가리도 없이 어린애가 기차길을 건너다니는 것도 모자라 어린 동생까지 데려가냐며 엄마에게 마당을 쓰는 짜리 빗자루로 먼지 나게 맞았다. 아마도 내 생을 통틀어 가장 많이 맞은 날이 이 날이지 않을까 싶다.

이 사건 이후로 나와 우리집 근처 모든 친구에게 기차길은 혼자서 갈 수 있는 금단의 경계가 되었다. 비슷한 전철을 통해 내 친구들의 소개를 받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나머지 이들도 차차 어른들에게 비밀이 드러나면서 동네 일대의 아이들 모두 기차길 근처는 얼씬도 못 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겼다. 그랬던 기차길이 동계올림픽으로 ktx 노선이 지하화되면서 성인 두세 명 정도가 나란히 산책하기 적당한 월화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별생각 없이 월화거리를 걷다 문득 그 드넓어 보이던 기차길이 겨우 사람 두셋이 서 있을 폭 밖에 안되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했다. 지금도 이 거리를 걸으면 꼬마 아이였던 내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힌다. 같은 공간, 그 시간 사이로 내 추억이 켜켜이 쌓여가는 소리가 들린다. ▲



지금은 노암동을 지켜주는 많은 우산들이 있다.

글 김나훔



강릉에 이사 온 지 벌써 1년 반이 흘렀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올 것이라는 뉴스와 달리 올 여름은 비 소식이 정말 많았다. 매년 찾아오는 무더위에 유난히 취약한 나는 이렇게 올여름이 지나간다는 사실에 조금 안도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꿈꿨던 집안의 냄새 나는 빨래나 죽어가는 식물들을 보면 ‘역시 여름은 적당한 열기가 세상을 달궂줘야지...’하고 청개구리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태풍 ‘루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강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날씨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주변 지역주민분들에게 태풍 루사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게 된다.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그 날의 일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기록된 기사들과 지역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따라 유쾌하지만은 않은 그 날의 기억을 찾아보았다.

태풍 루사는 2002년 8월 말 한반도에 찾아왔다. 당시 순간풍속은 초당 40m에 육박했으며 그보다 더 강력했던 것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장대비였다. 특히 강원 영동지방, 강릉에는 한반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일강우량이었다던 547.5mm를 훌쩍 넘는 870mm의 비가 쏟아지며 역대 폭우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 시기 강릉에서 큰 피해를 받았던 곳으로는 노암동이 손꼽힌다. 당시 이 동네에 거래처를 두었던 노암동 한 편의점 사장님은 간판 위까지 차오른 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그 날의 풍경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비 피해를 직격으로 맞았던 현 통장님은 집안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통에 모든 가재도구를 버려둔 채 간신히 몸만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물이 2층 지붕까지 잠겼다는 말은 몇 번을 들어도 도저히 내 머릿속으로는 쉽게 그려지지 않는 모습이다. ‘거대한 덩프트력이 깜빡이를 켜고 배처럼 톱톱 떠내려오더라’는 이야기와,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마루 밑에서 미꾸라지가 발견되었다'는 통장님의 웃지 못할 이야기는 그날의 심각성을 대변해준다. 그 이후로 노암동은 '상습침수지역'이라는 불편한 별명을 얻게 되었다.

난 태풍 루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주민들에게 더 듣고 싶었다. 하지만 워낙 거대한 재난이었고 주민들에게는 그 끔찍한 기억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일인 탓에 많은 분이 자세하게 말하기를 꺼렸다. 재난의 상흔이 아직도 마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아무렇지 않게 그날의 기억을 들춰 보려고 했던 나 자신이 경솔했다고 뒤늦게 생각했다.

다행스럽게도 스콘 멤버의 도움으로 노암동에서 통장으로 있는 두 분과 짧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통장님들께 들은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다.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남대천 근처에 방치해놓은 건설폐

기물(나무)들이 강 쪽으로 쓸려내려 가기 시작했고,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빠져야 하는 곳을 폐기물들이 막아버려 마을 전체가 잠겨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다. 처음엔 장비를 통해서 막힌 폐기물들을 빼보려고 했지만 쏟아지는 비 때문에 결국 그마저도 중단되어버렸고 노암동은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잠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런 탓에 두 통장님은 루사의 사고는 천재이기도 하지만 인재이기도 하다는 말을 했다. 조금만 더 사전에 주의했으면 그런 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오명 또한 주민 입장에선 몹시 불쾌하고 조금은 과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루사 이후로 노암동은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살기 좋은 마을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나는 이번 기회에 노암동을 돌아보며 남산을 끼고 있는 아기자기한 마을의 풍경이 매우 정겹게 느껴졌다. 넓은 공원, 푸른 나무들, 전통 가옥과 형형색색의 주택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유쾌하지 못한 역사적 사건들을 알게 되었고 그럴수록 더욱 이 마을에 왠지 모를 애착 같은 것이 생겨났다. 통장님들께서 이런저런 힘든 시기의 이야기 그리고 아쉬운 이야기에 대해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거기에는 이 마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절절한 마음이 깃들어있어 나는 작게나마 미소를 짓게 되기도 했다.

“여기 살기 좋아요. 은행 가깝고 산을 끼고 있어서 공기도 좋고 시장이나 하천 가까이 있고, 조망도 좋고요. 주위 여건 정말 좋아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우려하는 것도 이제는 옛말이에요. 꾸준히 시설적인 부분도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가 많이 내린 날에는 되려 다른 마을이 더 걱정이에요. 단 하나 고민이 있다면 마을 고령화가 심하다는 거죠.”

예전과 달리 많은 사람의 시선이 상처 많은 노암동의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 관심의 씨앗은 여기저기 흩뿌려져 반드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꽃 피우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그날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노암동이 좀 더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당당히 강릉의 대표 마을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



다 같이 돌자 동네 열바퀴

도착

우선
멈춤

계단이 이쁜마을 부기촌에도착했다

홀수 : 나온 수 만큼 이동합니다.

짝수 : 김운기 가옥으로 가세요.

노암터널

순국선열에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우선멈춤에 관계없이 지나가세요.

태극기
마을

김운기 가옥

우선
멈춤

알록달록, 집을 잘 보고 가야하는데..

홀수 : 김운기 가옥쪽으로 나온 수 만큼 이동

짝수 : 태극기 마을쪽으로 나온 수 만큼 이동

주사위게임

단오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홀수 : 나온 수 만큼 이동합니다.

짝수 : 준비가 안되었군요. 오석정으로 가세요.

우선
멈춤

단오제하면

막걸리와 감자전

홀수 : 나온 수 만큼 이동,
짝수 : 너무 많이 마셨군요.
한번 쉬세요.

남산
벚꽃구경

홀수 : 나온 수 만큼 이동합니다.
짝수 : 벚꽃을 꺾으면 안되요
오석정으로 가세요.

이불 구입 ^^

홀수 : 나온 수 만큼 이동.
짝수 : 흥정을 잘 못했군요,
오석정으로 가세요.

축구 경기전

앞에 있는 플레이어
한명을 선택하여
대결을 신청합니다.
한번씩 주사위를 던져서
많이 나온 플레이어가 승리!

승 : 대결을 한 플레이어 위치로 이동
패 : 패어플레이존으로 이동

패어플레이존

만약 앞에 플레이어가
없을 경우 다른 한 플레이어를
선택하여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때 선택된 플레이어는
승패의 적용된 이동은 없습니다.

승 : 앞으로 세칸.
패 : 패어플레이존으로 이동

오석정

오석정에 다른 플레이어가 있을 경우
위령탑으로 내려가세요.

위령탑

출발



우선
멈춤

정한 순서에 따라 주사위(1개)를 던져 나온 수 만큼 이동합니다.
제일 먼저 도착지점에 도착한 플레이어가 승자입니다.
주사위는 한번에 한번만 던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지역에서는 다음 돌아오는 순서에 할 수 있습니다.

‘우선멈춤’에서는 나온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추고
다음 돌아오는 순서에 주사위를 던져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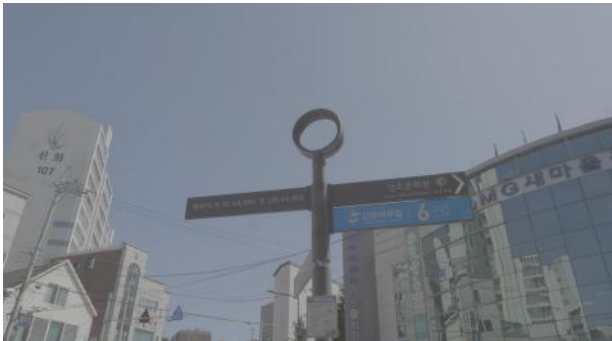
2002년
태풍 루사
1번 위기

강북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대한민국 전통 도시 형성에서 빗겨났던 강남동.
남대천 남쪽에서 꺼낸 기억에 꽃이 피는 모습을 그려본다



단오절 맛이 강릉농고와 강릉상고, 강릉상고와 강릉농고 축구 정기전을 내려다보았던 명소.
옛 공설운동장 자리는 현재 단오문화관이 자리 잡고 있다.





강남동 남쪽기억 2020. 영상 스틸컷
 기획. 문화그룹 스콘
 제작. 빛나는 날들
 제작지원.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강릉시 임영로155번길 6 (서부시장) 2층 57호

<http://www.gursc.org> T.033-642-3995 F.033-643-3996

Copyright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